

지역 소식통

부안군보건소, 건강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 실시

부안군보건소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인 '건강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10개소 경로당 이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안에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혈압 ·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 전체 사망원인 중 20%를 차지하고 있어 통합 건강증진 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질환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자 '건강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은 경로당별 주 1회, 4차에 걸쳐 실시하며 개인별 건강행태 설문조사, 건강 기초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질환별 추가검사(미세단백뇨, 당화혈색소), 맞춤형 양·한방, 치과진료를 시작으로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 순으로 총 40회 운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빼기' 시행

고창군이 9일부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를 본격 시행한다. '빼기' 서비스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고 모바일 앱과 온라인을 통해 수거신청에서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빼기'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이후 배출 품목을 촬영한 뒤 앱에 사진을 올리면 사물 인식 AI 기능을 통해 견적이 산출되고 수거 장소를 입력한 후 비용을 결제하면 된다. 자동으로 생성된 배출번호를 직접 폐기물에 기재하거나 종이에 써서 붙인 후 약속한 배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13억원 투입 토양개량제 지원

정읍시, 친환경 농업 실천... 14개 지역 규산질비료 · 석회고토 · 폐화석 전액 무상 공급

정읍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개량과 지력 증진을 위해 규산질비료 · 석회고토 · 폐화석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산성화된 토양개량과 지력 유지보존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읍면 지역을 순차적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양개량제는 살포 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됨에 따라 3년 1주기 간격으로 공급한다. 토양의 고유기능을 회복시켜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병해충 저항과 생산량 증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약 1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북면과 덕천면 응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상교동 등 14개 지역에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 폐화석을 공급했다.

특히 농가 고령화와 장비 부족 등으로 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살포단

을 구성했으며, 살포 대상 면적은 4,000ha에 적기 살포를 완료했다.

시는 이를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토양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지난 6~7일 열린 '제3회 고창 바지락 축제(오감체험페스티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3회 고창 바지락 축제'

심원면 하전마을, 오감체험페스티벌 뜨거운 관심속 성료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지난 6~7일 열린 '제3회 고창 바지락 축제(오감체험페스티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총 1만9200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다.

이번 축제에서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주를 이루 갯벌체험, 바지락 무료 나눔 · 시식, 풍선잡어잡기, 현미경으로 바지락관찰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바지락 선크림 · 가변 만들기, 조약돌에 그림그리기 등 체험코너는 축제를 찾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생산된 맛과 품질이 우수한 고창군

바지락을 시중가 보다 30% 할인 판매해 준비된 5분이 조기 완판 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하전 청년회와 부녀회가 운영한 먹거리 코너에서는 바지락 전, 회무침, 갈국수, 비빔밥, 바지락탕, 해물라면 등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으며, 바지락, 풍선잡어, 지주식김 등 고창의 우수한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권영주 하전어촌계장은 "고창 바지락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바지락을 선보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축제에 오시는 고창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시장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

시민과의 대화 의견 시정반영 검토 · 전국단위 대회 유치 노력 '주목'

유진섭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현행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9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당초 계획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리 원칙에 입각해 공직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는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지방선거 기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관리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유진섭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현행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도시가스 등 · 배수로 정비 등 생활밀착형 건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

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유 시장은 관공이 함께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노인일자리 영농사업단 확대 운영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9일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영농사업단 확대 운영'을 한번 더 권익현의 소화행 공약 8호로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오래 영농경험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부안갯벌할매로컬푸드를 통해 판매하는 노인일자리 영농사업단을 13개읍면으로 확대 운영하여 500여 어르신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부안갯벌할매로컬푸드가 개장하면서 노인일자리로 운영하는 할매반찬 코너와 계화양지마을 누룽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생산한 고구마, 양파, 감자 각종 신선채소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

물 선별 · 가공, 두부제조, 밀키트제조 등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인건비지원 뿐만 아니라 작업장 제조시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도 푸드엔레포츠타운이 완공이 되면 갯벌할매 소풍물 농가레스토랑 가공공장, 공공급식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어르신들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 가공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함께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수황산 · 무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북 고창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관련해 '고수황산'과 '무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각각 고수면과 무장면 소재지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호(24㎡, 26㎡), 국민임대주택 220호(26㎡ ~ 46㎡)로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국민임대주택은 IH 청약센터(인터넷 · 모바일)로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고창읍내 휴먼시아 관리사무소에서 단 1일간만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고수황산과 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해 현재 1층 벽체 공사중에 있다.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시기는 2023년 9월(무장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4만4000원 ~ 21만4000원)로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